

2001년도 정기총회 개최

우리 협회의 올해 정기총회가 지난 3월 15일 반포에 위치한 팔래스호텔 라일락룸에서 개최됐다.

정회원사와 특별회원사 대표 및 관계자들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한해동안의 협회사업을 결산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심의하는 한편 임원진을 대폭 보강했다.

최석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로 두돌을 맞은 협회가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기반을 조성하고 자리를 잡게 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앞으로 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며 ESCO사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3가지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 2000년 사업결산

지난해 재정운영실태 및 자금현황, 주요사업성과 등을 보고했다. 지난 한해동안 협회에는 성림산업개발, 건영, 대현엔지니어링, 키트론, 한라건설, SK, 이엔이시스템, 네오정보시스템 등 8개사가 신규 정회원으로 등록, 회원사가 총 28개사로 늘었다. 또한 ITS 산전이 특별회원으로 등록, 전체적으로 36개사가 되었다.

■ 임원진 보강

협회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풍부한 경험과 지식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임원진을 보강했다.

양승창 이사(세광에너텍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에너지솔루션즈 이범용 사장, YTC EN-Tech 김기석 사장, BTI 소재옥 사업본부장, 키트론 황태진 회장, SK 김종식 상무이사가 각각 이사로 선임됐다. 이들 신임 임원들은 "ESCO사업과 협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2001년 사업계획

대정부·관계기관의 법규 및 제도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부채비율 증가문제 해소와 자금지원제도 및 적격심사기준의 개선을 통해 ESCO사업의 장해요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표준산업분류에 ESCO가 명기되지 않아 이를 산자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참석관 회장(왼쪽), 그리고 김종덕 고문(가운데)과 이창순 감사(오른쪽)

와 통계청에 요청, 지식기반산업에 '에너지절약전문서비스업' 항목을 신설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표준산업분류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ESCO사업 고유의 성격과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ESCO들의 자체자금 투자사업분에 대한 실적증명서 발급업무를 협회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이관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회원사 지원사업으로는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각종 정보를 발빠르게 전달하는 한편, 각종 매체홍보를 통해 회원사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3개의 기술분과위원회, 제도분과위원회, 경영분과위원회, 운영

위원회 등 총 6개 전문위원회의 활동도 올해는 본격 강화하고, 에너지진단 전문가 양성교육, 기술세미나, 현장 견학 등도 올한해 협회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다.

오자현 부회장은 "정부가 우리 협회를 대화 채널로 인정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일 것"이라며 "앞으로 협회의 위상을 강화시키거나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문 대표로 참석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종덕 박사는 "아직 협회의 고유업무나 사업이 없는 점이 아쉽다"며 "정부인증이나 허가 사업 등을 위임받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진을 대폭 보강했다. 신임 임원들은 "ESCO사업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협회 부회장 및 이사로 선임된 인사들. 왼쪽부터 양승창 부회장, 소재옥 이사, 황태진 이사, 김기석 이사, 김종석 이사